

# 시도 때도 없는 눈물 방치하면 안돼요



## > 눈물흘림증 <

기쁨이나 슬픔 같은 정서적 느낌이나 외부 자극이 없는데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흘러나와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학용어로 '눈물 흘림증'이라고 한다. 흐르는 눈물과 고인 눈물로 인해 눈 꼬리가 짓무르거나 쓰라리고, 눈곱도 자주 생기고 시력 저하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화장이 흐르는 눈물에 의해 지워지고 눈 주위가 지저분해져 심각한 불편을 호소하기도 한다. 눈물흘림증에 대해 보라안과병원 강석준 원장의 도움으로 알아본다.



강석준 광주 보라안과 원장이 안구검사 정밀장비로 환자 눈물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 보라안과 제공

### ◇ 눈물흘림증이란

눈물흘림증은 말 그대로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세균의 성장에 좋은 조건이 형성되어 선천적 염색의 원인이 되고 피부염을 일으킨다. 그 원인으로 알레르기, 감염, 이물질, 비정상적인 위치의 속눈썹, 누점·누낭·누관 등 눈물 배액로의 형성부진 또는 감염, 눈꺼풀의 이상, 신체의 다른 감염 등이 있다.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여러 검사가 필요하다.

눈물의 배출에 필요한 조건이나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눈물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가, 즉 많은 비가 오면 하수구가 잘 뚫려 있어도 물이 넘쳐흐르듯 눈물 생산량이 많게 되면 눈물길을 빠져 나가지 못한 과도한 눈물이 눈 밖으로 흘러내리게 된다. 또 눈물길의 입구가 안구와 잘 맞닿아 있는가 여부와 눈꺼풀의 정상적 위치도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눈을 깜박일 때 눈물을 눈물길로 빠져 나가도록 쥐어 짜주는 눈꺼풀의 펌프 기능이 정상인지, 눈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인 눈물길이 해부학적으로 잘 뚫려져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처럼 눈물의 배출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여러 가지 미세한 기능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게 된다.

눈물샘에서 분비된 눈물은 눈물점, 눈물소관, 눈물주머니를 거쳐 코눈물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출된다.

이 눈물길이 막히면 평소보다 눈곱이

## 원인 파악 위한 검사 받아야... 건조증과 달라 통로 막히면 기능적 폐쇄... 적절한 조치 필요 미세 드릴로 눈물길 수술 국소마취 흉터 없어

자주 끼고 눈 표면에 눈물이 자주 고이고 과도하게 눈물이 흐르는 증상이 생긴다. 심하면 눈물이 너무 자주 고여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도 한다.

◇안구건조에 따른 눈물흘림 차이  
눈물길 폐쇄로 인한 눈물흘림 증상이 흔한 안구건조증과 비슷해 헷갈릴 수 있다. 눈물길 폐쇄와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흐르는 원인이 다르다.

안구건조증에 의한 눈물흘림은 주로 외출 시, 바람이 많이 불 때, 겨울철 안구 자극이 심할 때만 눈물이 흐르는 경향이 있다. 반면 눈물길 질환은 하수도가 막힌 상태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눈물이 많이 흐르는 점 다르다.

이에 따라 눈물흘림증의 치료는 눈물길이 막혔는지 좁아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눈물관 세척 검사'를 통해 눈물길이 좁아지거나 막혔는지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눈물길 입구에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여 물이 내려가는 정도를 보는 검사다.

물이 코 뒤나 목뒤로 내려가는 것이 느껴지는지 확인하고 느껴지지 않으면 눈물길이 막힌 것으로 진단한다. 눈을 관 세척 검사 이후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각을 하지만 국소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하고 외관상 흉터도 보이지 않는 안전한 수술법이다  
눈물길이 막히지 얼마 안됐거나 좁아진 경우에도 눈물이 잘 빠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살리관관을 눈물길에 3-6개월 임시로 삽입해 좁아진 눈물길을 넓혀주는 '살리관 삽입술'을 시행한다. 내시경을 이용해 코 안에서 수술하므로 점막 손상이 적다. 이 수술은 시간도 약 5-15분 정도로 길지 않고 입원하지 않아도 되며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으로 전신마취가 어려운 환자도 부담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강석준 광주 보라안과 원장은 "눈물 흘리는 것을 단지 '불편함' 정도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되어 각종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눈물길 수술은 어렵지 않고 간단한 치료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증상을 참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미세 드릴로 막힌 통로 뚫어  
눈물폐쇄증은 레이저나 미세 드릴로 수술할 수 있다.

레이저 수술인 '레이저 누낭비강 연결술'은 눈물길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뼈에 레이저로 구멍을 내 새로운 눈물길을 만들어 주는 수술이다.

레이저눈물길 수술 후에 새로 만들어진 눈물길이 다시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경 0.8mm정도의 살리관관을 삽입한다. 살리관은 인체에 무해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관이 삽입돼 있는 기간에도 큰 불편함이 없다. 삽입된 살리관은 경과에 따라 3-6개월 후에 제거한다. 뼈를 뚫는다 하니 굉장히 복잡한 수술로 생

각을 하지만 국소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하고 외관상 흉터도 보이지 않는 안전한 수술법이다

눈물길이 막히지 얼마 안됐거나 좁아진 경우에도 눈물이 잘 빠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살리관관을 눈물길에 3-6개월 임시로 삽입해 좁아진 눈물길을 넓혀주는 '살리관 삽입술'을 시행한다.

내시경을 이용해 코 안에서 수술하므로 점막 손상이 적다. 이 수술은 시간도 약 5-15분 정도로 길지 않고 입원하지 않아도 되며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으로 전신마취가 어려운 환자도 부담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강석준 광주 보라안과 원장은 "눈물 흘리는 것을 단지 '불편함' 정도로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균 증식의 원인이 되어 각종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눈물길 수술은 어렵지 않고 간단한 치료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증상을 참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강석준  
<보라안과 원장>

## 전남대병원 박근숙 특수간호과장 '국민교육발전 유공' 교육부 장관 표창

전남대학교병원 박근숙 특수간호과장(사진)이 국민교육발전 유공으로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6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0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에서 박근숙 과장을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교육부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은 투철한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교육 전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등을 선발·포상해 그 공을 기리고 교육발전의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마련된 것이다.

박 과장은 전남대어린이병원·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을 담당하는 특수과



장으로 근무하면서 중환자들을 위한 최신훈호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및 보조인력 교육에 힘써왔다.

특히 감염취약부서를 관리하면서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 및 보호자 교육자료도 제작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박 과장은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그리고 병원 내 감염 방지를 위해 보다 노력하는 간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민 기자

## 조선대병원 김현국, 국내 낮은 코로나 사망률 연구

조선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김현국 교수(사진)팀이 심혈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항혈전제 전략을 사용 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환자에서 보다 특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국제학술지 'Thrombosis and Haemostasis'에 최근 게재 발표했다.

16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김 교수 연구팀은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기간 한국인 급성관동맥증후군 환자에서 표준용량의 프라스구렐 및 티카그렐러 사용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를 구체화 시켰다.

또 동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경구 항응고제 치료(NOAC 포함) 전략 필요성을 처음 제시한 것은 물론 같은 항응고 효과에서 동아시아인은 서구인에 비해 뇌출혈을 포함한 위중한 출혈이 많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병을 포함한 '혈전-염증 질환'에 대한 최신 지견과 전망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코로나19 사



망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된 혈전증(폐포내혈전증,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및 뇌졸중)의 경우 이전 관찰 결과 다른 인종에 비해 동아시아인에 서 심부정맥혈전증 발생빈도가 가장 낮았는데 이를 통해 동아시아인의 낮은 응고-염증 성향을 제시한 것이다. 김 교수는 이런 성향이 코로나19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김현국 교수는 "8년 전에 간단한 임상적 관찰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인 패러독스가 점차 많은 전문가가 믿을 수 있는 임상자료가 쌓이면서 그 개념 또한 점차 넓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항혈소판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개념이 항응고제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김현국 교수는 "8년 전에 간단한 임상적 관찰로부터 시작된 동아시아인 패러독스가 점차 많은 전문가가 믿을 수 있는 임상자료가 쌓이면서 그 개념 또한 점차 넓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항혈소판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개념이 항응고제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 기온 '뚝' ... "한랭 질환 조심하세요"

### 장갑·목도리 등 착용해야

질병관리청은 최근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저체온증이나 동상, 동창과 같은 한랭 질환 발생에 대비해 달라고 16일 당부했다.

몸이 아직 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한 추위에도 한랭 질환이 나타날 위험이 크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초겨울 추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9~2020절기 한랭 질환자 303명 중 127명(41.9%)은 첫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환자 중 146명(48.2%)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 질환자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울겨울은 평년과 비슷한 정도의 기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찬대륙 고기압이 내려올 경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저체온증, 동상 등을 예방하려면 한파 시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성인보다 체온 유지가 어려워 한파 시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 /김영민 기자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병원

주부센터  
어깨/팔꿈치센터  
취주센터  
무릎센터  
소아청소년과

**수원센터**  
SUWAN CENTRAL MEDICAL CENTER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로6 (신가동 1159)  
대표전화 062) 950-97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_650\_2500

조선대학교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보건복지부·국가금연지원센터 지정

아간상담운영(매주 수요일 17:00~20:00)

동구 필문대로 365  
전화 222-9030(금연성공)

SANGMU SU DENTAL CLINIC

**상무수치과의원**

SANGMU SU DENTAL CLINIC

- 명품 임플란트, 보톡스, 턱관절 전문의
- 사랑니 발치 전문의
- 레이저 무통 수술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대로 91  
DY빌딩 2층, 상무역 1번 출구  
상담전화: 062) 371-4028, 5028

www.kshosp.com

**KS+ KS병원**

수원 신도심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으로 Green Hospital을 지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동 양버들로 220  
대표전화 062) 975-9000 응급실 062) 975-9119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